

생명사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주간

2014. 12. 1

# 전남농업정보

VOL 11

- 주간 기상전망**
- 농산물 재배 동향**  
2014년산 전남지역 쌀 생산량 조사결과
- 농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쌀, 엽근채소, 양념채소 가격동향
- 농림축산식품 수출 동향**  
10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68.9억불로 전년대비 6.0%증가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배합사료, 가격 비교해 보고 구매하세요  
찬바람 부는 겨울, 한우 건강하게 잘 기르기
- 정책동향**  
전남도 김장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추가 시장격리
- 해외 농업정보**  
중국,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수 수입 허용
- 사업신청 안내**  
20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전라남도  
JeollaNamdo

요 약

☼ 주간 기상전망(농촌진흥청)

-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4일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5~6일은 눈이 오는 곳이 많겠으며,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 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예상

☼ 농산물 재배 동향(호남지방통계청, 전남도)

- ▶ 2014년 쌀 생산량 809천톤으로 전년보다 1.7% 감소
  - 벼 재배면적 : '13) 171→'14) 170천ha(1,000ha, -0.6%) 감소
  - 단위면적(10a)당 쌀생산량 : '13) 483→'14) 478kg(5kg, 1%) 감소
- ▶ 14/15년 맥류(동계작물) 재배면적 15,793ha으로 전년보다 11.8% 증가

☼ 농축산물 가공·출하 및 가격동향(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공식품 : 간장(샘표) 4,760원/ℓ, 고추장(대상) 803원/100g, 김치(대상) 5,947원/kg, 두부(풀무원) 1,073원/100g
  - 전년대비 간장 2.5% 상승, 고추장 8.8% 상승, 김치 7.3% 상승, 두부 4.1% 하락
- ▶ 식량작물 : 쌀 41,600원/20kg(전년보다 하락)
  - 시장공급 가능물량, 이월 재고량 등의 영향 및 단경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쌀값 하락 예상
- ▶ 엽근채소 : 배추 390/1kg, 무 476원/1kg(전년보다 하락)
  - 배추는 시장격리 및 수요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 전망
  - 무는 김장철 진입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전주대비 상승 전망

- ▶ **양념채소** : 건고추 860천원/60kg, 마늘 33,800원/10kg(전년보다 상승)
  - 본격적인 김장철 진입에도 불구하고 미리 고춧가루를 구매한 가정이 많아 전주 수준 유지
  - 마늘은 김장철 수요가 있으나 이월재고 등으로 약보합세 전망
- ▶ **과 채 류** : 감귤 17,200원/10kg(전년보다 하락)
  - 성출하기를 맞아 수요증가로 가격 상승 전망
- ▶ **축 산 물** : 돼지고기 2,110원/100g(전년보다 상승)
  - 연말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상승 전망

### ☞ 농수산물식품 수출 동향(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14년 10월까지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대비 6.0%증가한 68.9억불

### ☞ 농업기술정보(전남도, 농촌진흥청)

- ▶ **배합사료, 가격 비교해 보고 구매하세요**
  -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제품별 가격비교 한눈에 할 수 있다.
- ▶ **찬바람 부는 겨울, 한우 건강하게 잘 기르기**
  - 송아지는 보온·건조, 육성우 호흡기질병·벼짐, 비육우 식수 주의
- ▶ **돼지 성장 단계에 따른 최적의 사육면적은?**
  - 적정 면적 제공하면 방역·치료비 줄고 사료 이용성 높아

### ☞ 정책동향(전남도)

- ▶ **전남도 김장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추가 시장격리**
  - 가을배추 225ha(26천톤) 추가 시장격리, 김치가공업체 8억원 원료 매입자금 긴급지원
- ▶ **전남도 이삭도열병 피해 벼 '잠정등외' 매입 추진**
  - 벼 이삭도열병 농업재해 인정으로 잠정등외 등급신설 및 매입결정

### ❁ 해외 농업정보(농업관측센터)

- ▶ 중국,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수 수입 허용
  - 중국, 11월 3일부터 남미로부터 수수 수입 인가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가격, 기후우려로 일주일래 최고치 상승

### ❁ 고소득 농업사례(남도일보)

- ▶ 농촌 청년사업가 어린이용 버섯체험키트 출시
  - 석사 청년농부, 버섯체험키트 개발

### ❁ 사업신청 안내(전남도)

- ▶ 2015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 기 한/장 소 : '14. 11. 20. ~ 12. 19./거주지 읍면사무소
  - 지 원 대 상 : 도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65세 이하의 농·어업인 및 농수산물식품 사업자
  - 지 원 내 용 : 연리 1%, 연체이율 10%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법인, 신지식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3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 20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 기 한/장 소 : '14. 12. 31./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신 청 자 격 : 만 18세이상 50세미만 병역필,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자로 농업경영체등록(예정자)
  - 지 원 내 용 : 연리2%, 3년거치 7년 상환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축사신축 등 영농자금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4. 11. 28.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11/28)	5일전 (11/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물	쌀(일반계)	20kg	41,600	41,700	41,340	43,600	39,893	↓ 4.6	↑ 4.3
	콩(백태)	35kg	140,000	141,000	137,000	166,600	189,200	↓ 16.0	↓ 26.0
	고구마(밤)	10kg	19,400	19,400	19,800	16,000	21,483	↑ 21.3	↓ 9.7
	감자(수미)	20kg	20,400	20,400	20,000	18,800	29,133	↑ 8.5	↓ 30.0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390	426	-	678	659	↓ 42.5	↓ 40.8
	양배추	10kg	4,400	4,400	4,600	5,180	6,313	↓ 15.1	↓ 30.3
	오이(다다기계통)	10kg	40,000	38,000	28,333	52,800	49,139	↓ 24.2	↓ 18.6
	애호박	8kg	18,400	20,400	14,560	14,760	20,557	↑ 24.7	↓ 10.5
	토마토	10kg	24,400	23,200	22,600	30,560	26,507	↓ 20.2	↓ 7.9
	무(가을)	1kg	476	476	0	518	542	↓ 8.1	↓ 12.2
	당근	20kg	16,000	164,000	28,960	27,520	28,007	↓ 41.9	↓ 42.9
	건고추(화건)	60kg	860,000	860,000	861,600	680,000	862,667	↑ 26.5	↓ 0.3
	풋고추	10kg	66,000	63,600	41,280	32,600	45,987	↑ 102.5	↑ 43.5
	마늘(난지)	10kg	33,800	33,800	34,200	27,800	34,767	↑ 21.6	↓ 2.8
	양파	1kg	520	520	520	980	883	↓ 46.9	↓ 41.1
	대파	1kg	1,060	1,040	1,132	1,488	1,702	↓ 28.8	↓ 37.7
	파프리카	5kg	20,200	20,600	28,800	23,200	24,440	↓ 12.9	↓ 17.3
	방울토마토	5kg	12,600	11,200	11,240	15,920	15,973	↓ 20.9	↓ 21.1
특용물	참깨(백색)	30kg	514,000	510,000	520,000	520,400	555,800	↓ 1.2	↓ 7.5
	들깨	45kg	413,000	405,800	410,400	417,600	363,700	↓ 1.1	↑ 13.6
	새송이버섯	2kg	6,800	6,800	7,000	8,640	0	↓ 21.3	0.0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율(%)	
		판매 단위	당일 (11/28)	5일전 (11/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과 일 류	사과(후지)	15kg	54,200	54,600	59000	71,400	71,000	↓ 24.1	↓ 23.7
	배(신고)	15kg	33,600	30,800	29,200	42,480	41,893	↓ 20.9	↓ 19.8
	감귤	10kg	17,200	16,600	15,760	18,280	16,666	↓ 5.9	↑ 3.2
0축 산 물 (소 매 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6,678	6,798	6,842	6,179	7,324	↑ 8.1	↓ 8.8
	돼지고기(삼겹살)	100g	2,110	1,954	1,831	1,640	1,651	↑ 28.7	↑ 27.8
	닭고기	1kg	5,247	5,268	5,320	5,816	5,406	↓ 9.8	↓ 2.9
	계란(특란)	10개	1,980	1,844	1,942	1,970	1,824	↑ 0.5	↑ 8.6
	우유	1리터	2,546	2,546	2,546	2,536	2,251	↑ 0.4	↑ 13.1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4. 12. 1.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율(%)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4,678 천원	4,352 천원	3,772 천원	↑ 7.5	↑ 24.0
	거세	5,275 "	5,437 "	5,165 "	↓ 3.0	↓ 1.0
송아지 (6~7월)	암	1,808 "	1,675 "	1,197 "	↑ 7.9	↑ 51.0
	수	2,377 "	2,240 "	1,988 "	↑ 6.1	↑ 19.6
육우(600kg)		3,321 "	3,280 "	2,486 "	↑ 1.3	↑ 32.6
젖소수송아지(7일령)		36 "	34 "	19 "	↑ 5.9	↑ 89.5
돼지(110kg)		444 "	471 "	311 "	↓ 5.7	↑ 79.0
육계(원/kg)		1,733 원	1,803 원	2,098 원	↓ 3.9	↓ 17.4
계란(원/특란10개)		1,415 원	1,453 원	1,408 원	↓ 2.6	↑ 0.5
오리(원/kg)		2,666 원	2,500 원	2,266 원	↑ 6.6	↑ 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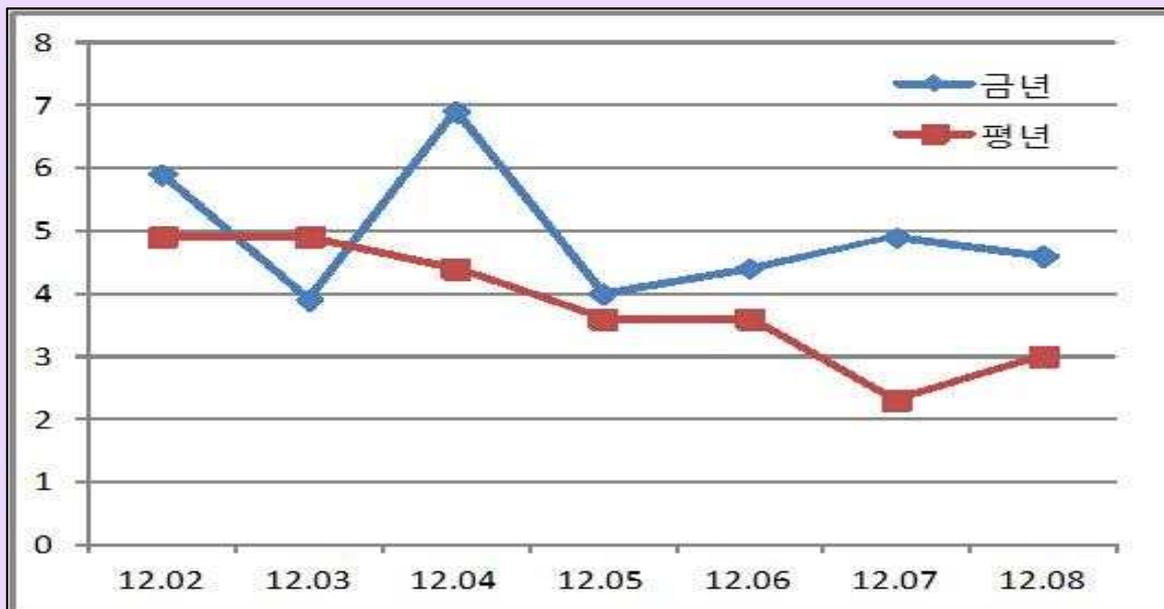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 1. 주간 기상전망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서비스/호남내륙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균(계)	4.9	3.8	1.1	8	9.2	-1.2	1.8	-1.2	3.1	0.9
12. 2(화)	5.9	4.9	1	9.4	10.4	-1	2.3	-0.1	2.4	0.7
12. 3(수)	3.9	4.9	-1	6.5	10.7	-4.2	1.3	-0.4	1.7	0.4
12. 4(목)	6.9	4.4	2.5	11.4	9.3	2.2	2.4	0	2.4	1.4
12. 5(금)	4	3.6	0.4	5.6	9.6	-4.1	2.4	-1.5	3.9	1.8
12. 6(토)	4.4	3.6	0.9	7.1	8.3	-1.3	1.8	-1.6	3.4	0.8
12. 7(일)	4.9	2.3	2.6	8.4	7.8	0.6	1.4	-2.8	4.2	0.8
12. 8(월)	4.6	3	1.6	8	8.6	-0.6	1.2	-2.4	3.6	0.8

\* 기온은 평균이고, 강수량은 합계이며, 평년은 2009-2013년까지 5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C)>

## 2. 농산물 재배 동향

### 2014년산 전남지역 쌀 생산량 조사결과

'14년 쌀 생산량은 809천톤으로 전년보다 1.7% 감소

□ 금년 쌀 생산량은 809천톤으로 전년보다 14천톤(-1.7%) 감소

○ 총 생산량(현백율 92.9%) : ('13)823 → ('14)809천톤(-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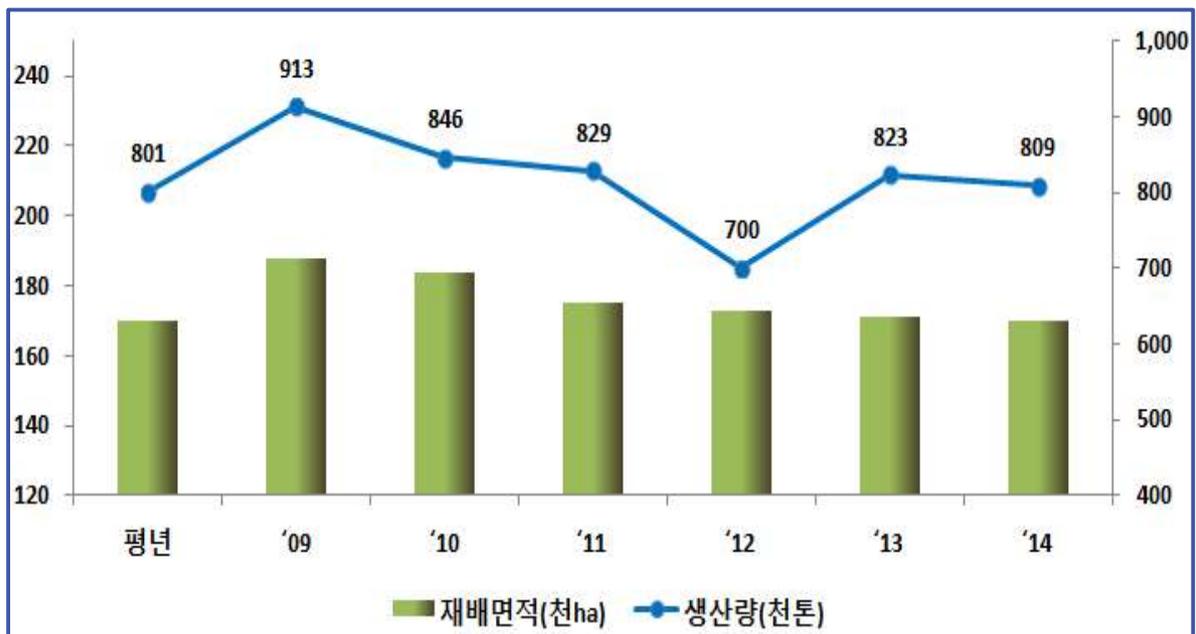
- 조정 현백률 90.4% 적용시 : ('13)801 → ('14)787천톤

□ 벼 재배면적은 171천ha로 '13년보다 1천ha(-0.6%) 감소

○ 공공시설, 건물건축 등에 따른 논 면적 감소와 소득이 높은 시설 작물, 특용작물 등 밭작물 전환 등에

- 연도별 벼 재배면적 : ('12) 173 → ('13) 171 → ('14) 170천ha

< 쌀 생산량 및 벼 재배면적 현황 >



- 단위면적(10a)당 쌀 생산량은 478kg으로 전년의 483kg보다 1.0% 감소
  - 단위면적(10a)당 쌀 생산량은 생육초기 이삭수가 증가하고, 등숙기에 일조량 증가 등 후기 기상여건 호조로 완전남알수가 증가하여 평년보다는 1.5%증가 하였으나, 풍년인 전년보다는 1.0%감소
  - 10a당 생산량 : ('13) 483 → ('14) 478kg, (평년) 471kg
    - \* 조정 현백률(90.4%) 적용시 : ('13) 470 → ('14) 465kg
  - 가지치는 시기(분얼기, 6월중순~7월초순)에 기상호조로 유효 이삭분얼수가 늘어 1m<sup>2</sup>당 남알수 증가
    - \* 초기 분얼기 기상(기상청)
      - 평균기온 : ('13) 24.6 → ('14) 23.3℃
      - 일조시간 : ('13) 132.0 → ('14) 184.3시간
    - \* 포기당 유효이삭수 : ('13) 17.9 → ('14) 19.5개(1.6개 증가)
    - \* 1m<sup>2</sup>당 남알수 : ('13) 26.5 → ('14) 26.5천개(89개 증가)
  - 벼 남알이 익는 시기(등숙기, 9월 중순~10월 하순)에 일조시간 증가, 일교차 확대 등 후기 기상 여건도 양호하여 9.15예상량 조사시보다 단위면적(10a)당 생산량 증가
    - \* 등숙기 기상(기상청)
      - 일조시간 : ('13) 375.3 → ('14) 1366.6시간
      - 강 수 량 : ('13) 106.8 → ('14) 19.5mm

\* 출처 : 호남지방통계청

## 2015년산 전남지역 맥류(동계작물) 재배면적 조사결과

‘15년산 맥류 재배면적은 15,793ha으로 ‘14년대비 11.8% 증가

- 전라남도 2014/15 맥류(동계작물) 재배면적은 계획면적대비 3% 감소한 15,793ha
- 밀 3,115ha로(계획면적 대비 4% 증), 걸보리 352ha(16% 증), 쌀보리 8,506ha(7% 감소), 맥주보리 3,820ha(1% 감소)

< 14/15년산 맥류(동계작물) 재배면적 >

구분	계	밀	걸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14년도 재배면적	14,123ha	2,643ha	51ha	7,116ha	4,313ha
15년도 계획면적(A)	16,339ha	2,994ha	303ha	9,170ha	3,872ha
15년도 재배면적(B)	15,793ha	3,115ha	352ha	8,506ha	3,820ha
(A/B)증감률	-3%	4%	16%	-7%	-1%



###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동향

#### 식량작물 : 쌀, 콩

- (쌀) 12월 가격 20kg에 41,600원
  - 2014년산 수확기 평균 쌀 가격은 전년대비 4.6%내외로 하락한 41,600원/20kg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콩) 12월 가격 35kg에 140,000원
  - 국산 콩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금년 수확기 가격은 작년보다 9~17% 낮을 것으로 전망

#### 과일 : 감귤

- (감귤) 12월 가격 10kg에 17,200원
  - 조생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단감출하도 마무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감귤시세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축산물 : 한육우, 돼지고기, 육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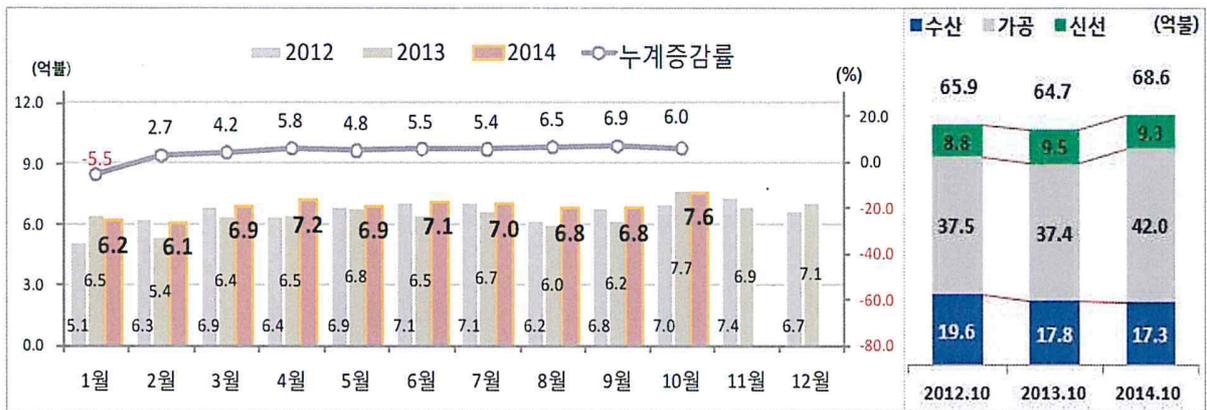
- (한육우) 12월 가격 100g에 6,678원
  - 도축 마릿수가 작년보다 감소하고 연말 수요증가로 상승 전망
- (돼지고기) 12월 가격 100g에 2,110원
  - 연말 특수로 수요 전년보다 증가 전망으로 전년보다 상승 전망
- (육계) 12월 가격 1kg에 5,247원
  - 12월 닭고기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로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하락 전망

## 4. 농림수산물 수출동향(전국)

### 총 관

- '14년 10월까지 농림수산물 수출은 68.9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6.0% 증가
- 10월까지 농림축산식품(수산물 제외)은 51.3억불 수출로 9.3% 증가

[ '12년 ~ '14. 10월별 수출추이 ]



월별 조업일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년	22	23	23.5	23	23	22.5	24	24	22	23	24	21.5
2013년	24	20.5	22.5	24	24	21.5	25	23.5	20	23	23.5	23
2014년	22	21.5	23	24	22.5	22	25	22.5	22	23		

\*조업일수계산법 : 평일(1일), 토요일(0.5일), 공휴일 제외

- (부류별) 신선농식품 0.4% 감소, 가공식품 12.7% 증가, 수산식품 1.4% 감소
  - (신선) 인삼(143.1백만\$, 9%), 딸기(25.2, 9), 밤(20.9, △28), 멜론(3.2, △12)
  - (가공) 음료(245.4백만\$, 17%), 비스킷(126.0, 19), 마요네즈(24.3, △21), 커피조제품(246.2, △1)
  - (수산) 김(228.3백만\$, 10%), 참치(483.3, 1) 넙치(51.7, △21), 굴(60.2, △1)
- (국가별) 미국(10.3%), 홍콩(7.9%), 일본(2.0%), ASEAN(1.1%), EU(10.9%) 등은 수출증가, 중국(△0.9%), 러시아(△0.2%) 등은 수출 감소

- 10월 당월 현재 국가전체 수출은 518억불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
  - 미국은 경기호조 및 연말 수요증가, 중국은 컴퓨터·자동차 등의 수출호조로 수출증가 반면, 유럽경기 둔화로 EU로의 수출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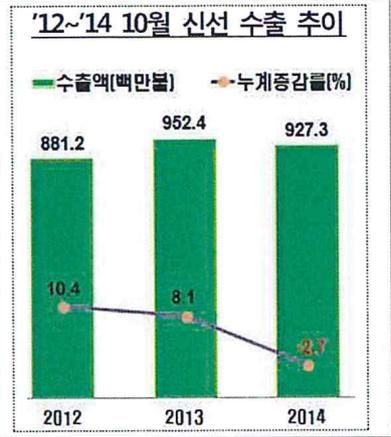
■ 품목별

- [신선농식품] 딸기(9.4%), 인삼(9.3%), 유자차(3.6%) 등은 증가한 반면, 밤(△27.6%), 멜론(△12.1%), 파프리카(△6.4%) 등은 감소

[10월 신선농식품 주요품목 수출현황]

(단위 : 백만\$, 천톤, %)

구 분	'13년	2013.10월		2014.10월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신선>	1,180.5	289.0	952.4	349.9	927.3	21.1	△2.7
(+) 딸기	29.8	2.6	23.1	2.9	25.2	14.0	9.4
(+) 인삼	174.9	3.8	130.9	4.6	143.1	19.9	9.3
유자차	43.0	10.6	31.9	11.1	33.0	4.9	3.6
(-) 밤	32.8	11.6	28.9	9.6	20.9	△17.4	△27.6
(-) 멜론	4.1	1.0	3.6	1.0	3.2	△0.2	△12.1
파프리카	87.0	17.6	69.7	18.9	65.2	7.3	△6.4



○[딸기] 화훼 등 일본 수출 온실작물 소득감소로 인해 농가에서 겨울딸기로 품목을 전향하며 딸기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동남아시아(싱가포르·말레이시아)내 한국산 딸기 인지도 증가로 수요 증가 추세

\* 국가별 : 싱가포르(8.3백만\$, 17%), 말레이시아(3.0, 12), 러시아(0.6, 57), 괌(0.1, 374), 태국(1.9, △2)

○[인삼] 중국삼 가격 상승에 따른 한국산 인삼제품의 가격경쟁력 강화로 중화권 내 한국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홍삼조제품·인삼음료가 미국으로 수출증가세

\* 국가별 : 홍콩(35.5백만\$, 17%), 중국(30.8, 1), 대만(19.1, 24), 미국(11.0, 7), 베트남(5.2, △30)

○[유자차] 유자 과육 함유량을 늘리고 설탕함유량을 줄이는 등 현지 웰빙식품 선호 트렌드에 맞춘 신상품 개발과 함께 다양한 레시피 개발로 중화권 수요 확대

\* 국가별 : 중국(17.8백만\$, 12%), 홍콩(4.7, 8), 대만(2.1, 3), 미국(1.4, 14), 일본(4.9, △27)

○[밤] 금년 불량률이 높고 수매가격 하락 및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수확을 기피하는 임가가 늘어나면서 공급물량 감소

\* 국가별 : 중국(14.1백만\$, △35%), 일본(4.2, △2), 미국(1.9, △20), 홍콩(0.1, 103), 캐나다(0.1, 105)

○[멜론] 엔화하락 지속에 따른 농가수취가 하락으로 농가들의 국내 출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일부 업체들의 저급품 덤핑수출로 인해 수출단가 하락

\* 국가별 : 홍콩(744천\$, 20%), 싱가포르(324, 32), 대만(303, 199), 일본(1,729, △33)

○[파프리카]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경기 둔화로 주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가격 상승으로 수출용 출하가 내수용 출하로 대체되어 10월 수출물량 감소

\* 국가별 : 일본(65,136천\$, △6%), 대만(32, △76), 홍콩(20, 23)  
\* 국내 도매가격 상승 : ( ` 13.10월) 4,509원/kg → ( ` 14.10월) 5,806

□ [가공식품] 조제분유(19.3%), 비스킷(18.6%), 음료(16.8%) 등은 증가한 반면, 마요네즈(△20.8%), 소주(△4.3%), 커피조제품(△1.2%) 등은 감소

[10월 가공식품 주요품목 수출현황]

(단위 : 백만\$, 천톤, %)



- [조제분유] 중국 내 소득증대 및 두 자녀 허용 정책 등으로 영유아관련 시장이 성장하며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속 성장세이며,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량이 연평균 15~2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증가세
  - \* 국가별 : 중국(59.9백만\$, 25%), 베트남(5.3, 20), 사우디아라비아(3.5, 90), 대만(0.6, 10), 캄보디아(0.6, △50)
- [비스킷] 주 수출국인 중국의 서구식 식문화 확산으로 식사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과자류와 유아용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아용 과자 수요 증가
  - \* 국가별 : 중국(39.9백만\$, 33%), 미국(20.4, 12), 대만(7.7, 3), 일본(10.6, △4), 홍콩(8.8, △11)
- [음료] 동남아지역은 과즙음료, 에너지드링크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알로에음료의 꾸준한 인기와 함께 최근 식혜가 수출증가세를 보임
  - \* 국가별 : 미국(53.0백만\$, 26%), 캄보디아(29.6, 34), 홍콩(8.6, 104), 중국(32.7, △3), 러시아(21.8, △2)
- [마요네즈] 주 수출국인 러시아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수입식품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마요네즈 성분에 대한 검역 강화 및 수입·현지생산 제품과의 경쟁심화로 중국으로 수출 감소
  - \* 국가별 : 호주(0.9백만\$, 17%), 싱가포르(0.6, 253), 러시아(19.4, △14), 중국(1.5, △69), 몽골(0.7, △19)
- [소주] 최근 일본시장 진출 브랜드들의 홍보·관측행사 노력으로 일시적 수출증가를 보였으나, 일본 내 저도주 선호에 따른 지속적인 소비감소로 누계실적은 감소
  - \* 국가별 : 중국(8.2백만\$, 17%), 미국(8.1, 2), 일본(58.5, △10), 호주(0.9, △18), 싱가포르(0.6, △1)
- [커피조제품] 주 수출시장인 러시아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물가상승으로 커피크리머 수출 감소세
  - \* 국가별 : 중국(45.6백만\$, 4%), 대만(11.7, 30), 러시아(36.2, △10), 인도네시아(29.1, △17), 카자흐스탄(6.5, △30)

□ [수산물] 미역(11.7%), 김(9.8%), 참치(0.8%) 등은 증가한 반면, 고등어(△37.8%), 넙치(△20.9%), 굴(△0.7%) 등은 감소

[10월 수산물 주요품목 수출현황]

(단위 : 백만\$, 천톤, %)

구 분	'13년	2013.10월		2014.10월		증감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 수산 >	2,151.3	587.9	1,781.4	598.2	1,730.7	1.8	△2.9
(+) 미역	28.5	16.2	24.5	13.6	27.4	△15.9	11.7
(+) 김	251.7	13.2	207.9	12.9	228.3	△2.5	9.8
(+) 참치	556.5	144.9	479.4	182.2	483.3	25.8	0.8
(-) 고등어	46.1	36.3	40.4	20.8	25.2	△42.8	△37.8
(-) 넙치	79.4	9.2	65.4	5.8	51.7	△36.5	△20.9
(-) 굴	70.2	8.7	60.6	8.6	60.2	△1.4	△0.7



○[미역] 주 수출국인 일본 내 미역 생산 감소 및 중국산 안정성 문제로 한국산을 선호하는 현지인들이 늘어나며 수출 증가

\* 국가별 : 일본(14.8백만\$, 17%), 미국(4.5, 4), 태국(0.7, 200), 호주(0.7, 17), 중국(2.6, △27)

○[김] 저칼로리·저염분 등의 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에서 김이 웰빙식품으로 인식되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내 김생산 감소로 마른김 수출 증가

\* 국가별 : 미국(58.0백만\$, 4%), 일본(52.5, 6), 중국(37.3, 35), 캐나다(9.0, 18), 태국(25.9, △15)

○[참치] 주 수출품인 가공용 참치의 국제거래가격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 수출국인 일본 내 횡감용 참치 수요 증가 및 고가 참치 단가상승으로 전체 수출이 전년대비 증가세로 전환

\* 국가별 : 이란(37.7백만\$, 1,202%), 에콰도르(34.4, 253%), 스페인(22.0, 67), 일본(201.4, △5), 태국(76.6, △43)

\* 월별(월누계) 수출실적 : ('14.5) 211.3백만불(전년동기대비 △22%) → ('14.7) 317.2(△12) → ('14.10) 483.3(1)

○[고등어] 금년 수온 하락 및 기상여건 악화 등 환경적 요인으로

고등어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수출물량 부족으로 수출 감소

\* 국가별 : 탄자니아(4.5백만\$, 57%), 모잠비크(1.0, 6), 대만(3.7, △31), 중국(2.4, △35), 미국(1.4, △44)

○[넙치] 일본은 엔저 장기화 및 활광어 소비 감소, 중국은 미국·러시아 등 타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수출 감소

\* 국가별 : 미국(9.9백만\$, 19%), 캐나다(0.7, 30), 일본(24.2, △22), 중국(14.2, △40), 베트남(0.2, △63)

○[굴] 주력품목인 냉동굴 및 조제굴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생육부진에 따른 신선굴 및 건조굴의 수출 감소폭이 커 전체 수출은 감소

\* 국가별 : 일본(28.1백만\$, 5%), 중국(2.3, 46), 미국(12.3, △6), 홍콩(8.0, △22), 싱가포르(1.7, △16)

## ■ 국가별

□ 미국(10.3%), 홍콩(7.9%), 일본(2.0%), ASEAN(1.1%), EU(10.9%) 등은 수출증가, 중국(△0.9%), 러시아(△0.2%) 등은 수출 감소

### <'14년 10월 국가별 농림수산물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

국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ASEAN	EU
수출액	1,744.0	1,073.2	664.2	215.0	330.9	213.8	1,117.1	364.6
증가율	2.0	△0.9	10.3	△0.2	7.9	5.3	1.1	10.9
(비중)	25.4	15.7	9.7	3.1	4.8	3.1	16.3	5.3

○[미국] 실업률이 6년만의 최저치인 5.8%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식품의 인기로 음료 및 스낵 등의 가공식품 수출증가세가 두드러지며 특히, 한국식 바비큐의 인기로 소스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주요 수출품목 : 김(58.0백만\$, 4%), 궤련(50.3, 22), 소스류(32.2, 12), 비스킷(20.4, 12), 배(18.4, 43), 참치(9.1, 21), 라면(21.4, △2), 굴(12.3, △6), 맥주(2.4, △6)

○[ASEAN]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신고배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판촉 및 홍보로 배, 현지 유통매장 입점확대로 과자류, 물 등이 수출증가세. 베트남은 대형마트 오픈과 연계한 한국산포도 판촉행사로 현지소비자 인지도가 증가하며 과실류 수출이 증가세. 싱가포르의 매장 진입품목 확대 및 가격경쟁력 확보로 과자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주류소비세 인상으로 주류 소비가 감소하며 주류 수출이 감소세

\* 주요 수출품목 : 궤련(86.9백만\$, 24%), 과당(32.7, 35), 라면(25.6, 16), 오징어(22.9, 32), 비스킷(18.3, 79), 참치(98.0, △37), 커피조제품(60.5, △10)

\* 주요 국가별 : 베트남(368.6백만\$, 4%), 인도네시아(164.5, 14), 필리핀(129.4, 15), 태국(185.9, △22), 싱가포르(95.9, △1)

○[홍콩] 최근 중국원삼의 가격이 급증하며 상대적으로 품질 경쟁력이 높은 한국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퓨전한식당·바비큐 스타일 한식당 등 다양한 형태의 한식당 증가로 현지인들이 김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김치 수출 증가세

\* 주요 수출품목 : 홍삼(28.6백만\$, 8%), 라면(10.9, 12), 김(7.2, 25), 유자차(4.7, 8), 김치(4.1, 34), 곡류조제품(3.9, 93), 돼지고기(3.1, 261), 설탕(43.8, △9), 맥주(26.7, △2)

○[중국] 유아용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제분유뿐만 아니라 유아용 과자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유통망 확대 및 외식업체, 커피전문점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며 유자차 수출이 증가세

\* 주요 수출품목 : 조제분유(59.9백만\$, 25%), 커피조제품(45.6, 4), 비스킷(39.9, 33), 김(37.3, 35), 홍삼(22.8, 1), 유자차(17.8, 12), 설탕(85.3, △20), 오징어(32.9, △49), 라면(29.0, △8)

## 5. 저비용 · 고효율 농업기술정보

### ■ “배합사료 가격 비교해 보고 구매하세요”

－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으로 제품별 가격비교 한눈에 할 수 있다. －

전남도는 배합사료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5호)’가 12. 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현재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운영되어 왔음.

그동안 양축용 배합사료는 사료업체와 축산농가 간의 직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에 따라 농가별 판매가격이 달랐고,

이로 인해 축산농가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또는 저렴하게 구입하는지 알 수 없었고, 다른 유사한 제품과의 가격 비교를 할 수가 없었다.

전남도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을 통해 축산농가가 배합사료의 가격을 비교해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 ‘배합사료 가격표시제’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 ① 표시의무자 : 「사료관리법」 제2조제9호의 판매업자
- ② 표시대상 : 국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단,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
- ③ 표시방법 : 매월 5일부터 익월 4일까지 제품별 전월 평균 판매가격을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하여 판매장소에 표시

- ④ 정보 제공방법 : 축종 단체가 가격정보를 종합하여 축산농가에 제공
- ⑤ 이행실태 점검 : 농관원 또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연중 1회 이상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 ⑥ 위반사항에 관한 조치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또는 고발

※ 전남도 2014년 양축용배합사료 소요량 : 3,622천톤

- 한육우 1,896천톤, 젓소 291, 돼지 737, 닭 423, 오리 262, 기타 13

※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활용 예시

전남 나주의 A농가는 그동안 관내에 위치한 B대리점의 C사료를 사용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축종협회가 제공하는 배합사료 가격 비교표를 보고 관내 D대리점과 영암의 E대리점이 B대리점보다 C사료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A농가는 D와 E대리점에 각각 연락을 하여 거래조건을 듣고 가격 협상을 해보니 관외이더라도 영암의 E대리점에서 C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다. A농가는 E대리점으로 거래처를 옮기게 되었고, 이전보다 사료비 부담을 덜었다는 데에 크게 만족했다.

## ■ 돼지 성장 단계에 따른 최적의 사육 면적은?

- 적정 면적 제공하면 방역·치료비 줄고 사료 이용성 높아 -

농촌진흥청은 돼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성장 단계별 사육 면적을 제시했다.

씨돼지 개량과 돼지우리 시설 개선에 따라 생산성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알맞은 규모의 우리가 부족해 밀집 사육하는 농가가 많다.

국내 평균 돼지 생산성은 양돈 선진국의 70% 수준으로 낮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낳은 새끼 수, 젖 떴 후 크는 비율(이유 후 육성률), 모돈 회전을 순이었다. 특히, 젖을 떴 후 크는 비율이 낮은 데는 돼지우리 내 환기 불량, 밀집 사육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 성장 단계별 사육 면적은 생산성 향상과 직접 연결된다. 밀집 사육을 하면 서열 형성에 따른 스트레스로 사료 섭취량이 줄고, 허약한 돼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생산성이 떨어진다.

농촌진흥청은 돼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 사육 면적을 밝히는 현장 실증 시험을 했다. 돼지 1,060마리를 체중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사육 면적에 따른 성장과 사료 이용성, 혈중 생화학 성분과 호르몬 농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체중 45kg~65kg에서는 0.64㎡가 0.51㎡에 비해 체중 증가량이 9% 높았고, 사료 요구율은 6% 개선됐다. 체중 85kg~110kg에서는 0.91㎡가 0.65㎡에 비해 체중 증가량은 17% 높았고, 사료 요구율은 11% 개선됐다. 반면, 폐사율은 6.5% 낮았고, 혈중 코르티솔(cortisol) 농도는 17% 낮았다.

< 돼지 성장 단계별 적정 사육면적 >

구분	11~25kg	25~45kg	45~65kg	65~85kg	85~110kg
사육면적 (m <sup>2</sup> /마리)	0.24	0.44	0.64	0.78	0.91

이렇게 적정 사육 면적을 제공하고 사료와 물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20마리 당 사료 용기와 급수기를 각각 1대씩 설치해야 한다.

■ 찬바람 부는 겨울, 한우 건강하게 잘 기르기

- 송아지는 보온·건조, 육성우 호흡기질병·버짐, 비육우 식수 주의 -

농촌진흥청은 최근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우 사육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우는 더위보다 추위에 강하지만 송아지는 기온이 영상 10℃ 만 돼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송아지의 건강을 위해서는 분만 전후 1주일간의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분만실은 필수이며, 2m×2.25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송아지 방에는 어미 소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보온 등을 달아주고 벧짚을 깔아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새끼를 낳은 소(분만우)는 최소 분만 2주 전부터 저녁 5시 이후 모든 사료를 하루에 한 번만 주고 낮에 분만하도록 유도한다. 송아지를 낳으면 소독과 배꼽 처리를 한 뒤 바로 마른 수건으로 양수를 닦고 헤어드라이어로 털을 말려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또, 어미소의 젖을 미리 닦아 깨끗한 상태에서 초유를 먹인다. 설사를 막기 위해 분만 전 45일 전후로 어미 소에게 예방백신을 실시한다.

이때를 놓쳤다면 분만 직후, 초유를 먹이기 전에 경구 투여 예방 백신을 사용하면 송아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육성우<sup>1)</sup> 관리에서 가장 유의할 점은 호흡기 질병과 버짐 예방이다. 추위에 대비해 우사 앞뒤를 압축포장 벚짚으로 틀어막고 윈치커튼까지 가리면 우사 내 습도가 올라가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쉽다.

버짐을 예방하기 위해 육성우는 햇볕이 잘 드는 방에 두고 비타민 A제재를 보충해 초기에 악화되는 것을 막는다. 특히, 천장에 이슬이 맺히면 환풍기를 틀어 수분을 밖으로 내보낸다.

비육우<sup>2)</sup>는 식수 공급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겨울철 식수 공급 부족은 사료섭취량을 떨어뜨리고 체액의 염류과다로 요석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15개월령 비육중기 무렵부터 염화암모늄을 한 달에 4일간 마리 당 20g 가량 먹인다.

증상이 이미 나타난 경우 1주~2주간 연속으로 급여한다. 급수관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 전기히터를 이용한 수조나 보온물통을 이용한다. 특히, 많이 추운 날에는 급수관이 얼어 터지지 않도록 가능하면 10℃ 이상의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다.

1) 이유직후의 송아지(생후 4~14개월)로 임신 또는 비육 단계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소

2) 질 좋은 고기를 많이 내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살이 찌도록 기르는 소

## 6. 정책동향

### ◆ 전남도, 김장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추가 시장격리

- 가을배추 225ha(26천톤) 추가 시장격리, 김치가공업체 8억원 원료매입자금 긴급지원
  - 전남도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김장배추의 수급안정을 위해 가을배추 225ha(26천톤)를 12월 중순까지 추가로 시장격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 도는 가을배추의 가격안정을 위해 지난 11월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을 비롯하여 4개 시군 대해 1차 시장격리 물량 187ha(22톤)를 확정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 이와 연계하여 2단계로 12월 5일 까지 거주지 지역농협에 희망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12월 19일까지 225ha에 대해 추가로 시장격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10a당 710천원을 농가에 지원한다.
  - 농업인이 애써 생산한 배추를 시장 격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작황 호조에 따른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 수급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추가 시장 격리가 겨울 배추 수급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도는 공급과잉 물량 시장격리와 함께 소비확대를 위해 도내 배추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료매입자금을 8개소, 778

백만원을 농가는 1억원, 법인은 2억원 한도 내에서 1% 저리자금을  
 용자 지원하고,

- 도내 22개 농협과 협력하여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절임배추  
 홍보 및 판촉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약판매와 함께 지속적인  
 김장채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 전남도, 이삭도열병 피해 벼 ‘잠정등외’ 매입 추진**

- 전남도가 그동안 이삭도열병 피해 벼에 대한 ‘잠정등외’ 등급 신설과  
 매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잠정등외’ 매입을 실시하게 되었다.
- 지난 11월 14일 중앙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전라남도의 벼  
 이삭도열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잠정등외’ 등급 신설 및 매입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 매입방법은 11월중 매입 희망량을 조사하고 조사된 물량은 12월중  
 전량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매입규격은 피해 벼 부피를 감안하여  
 40kg 포대에 알속무게 30kg, 800kg 톤백에 600kg으로 매입하고,  
 우선지급금은 ‘잠정등외 A’(수분 15%이하, 제현율 58%이상)는  
 30kg 포대당 29,000원, ‘잠정등외 B’(수분 15%이하 제현율 50%  
 이상)는 30kg 포대당 25,000원에 매입하게 된다.
- 금년 벼 재해피해는 출수기에 태풍 『나크리(8. 3. ~ 5.)』 와 잦은  
 강우 등으로 인하여 병해 저항성이 낮은 상태에서 이삭도열병이  
 감염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전남도내 이삭도열병 발생면적은 전체 벼 재배면적 170천ha의 13.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피해정도는 품종과 방제 상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20~30% 정도 감수가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시군별 발생면적은 나주시 4,385ha, 영암군 4,628ha, 고흥군 1,725ha, 강진군 980ha, 장흥군 939ha 등으로 주로 남부 해안지역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돼지고기 이력제 '14.12.28.전면시행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4.12.28일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한돈농가들은 매월 사육현황을 신고해야 하는 동시에 농장(도축출하 포함)간 돼지 이동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종돈의 경우 출생·이동·폐사 등도 신고사항이다.
- 현재 축산물평가원은 농장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사육이 확인된 6800여 농장에 '농장식별번호'를 발급했으며, 12월 1일부터는 종돈장에 개체식별을 위한 귀표를 공급할 계획이다.
- 또 한돈농장 사육현황신고의 경우 한돈팜스와의 연계와 함께 전화 및 팩스, 인터넷,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방법을 다양화하여 농가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7. 해외 농업정보

### ◆ 중국,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수 수입 허용

중국 검역당국은 아르헨티나로부터 수수 수입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수 수출국으로서 중국으로의 곡물 수출국들 중 미국과 호주 다음으로 중요한 수출국이다.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로부터의 수수 수입허용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의 경쟁을 야기할 것이다. 중국은 옥수수사료 대신 값싼 사료로서의 수수 사용량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검역당국은 아르헨티나와 식물위생규약에 대해 합의를 하고 11월 3일부터 남미로부터의 수수 수입을 인가하였다. 수수는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술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동물사료에의 사용은 지난해부터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증원인은 위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옥수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원재료 공급 다양화 및 국내 옥수수 대체곡물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다.

USDA에 따르면, 중국은 2014/15년 수수 4.6백만 톤을 수입할 전망이며 이는 2013/14년 4.16백만 톤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미국은 2014/15년 수수 5.8백만 톤을 수출할 전망이며 아르헨티나는 1.3백만 톤, 호주는 800,000톤을 수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해외 곡물시장 시황(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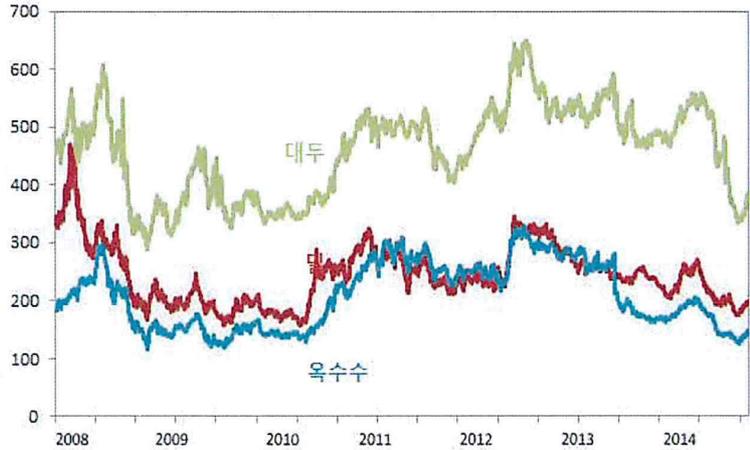
### 밀가격, 기후우려로 일주일래 최고치

####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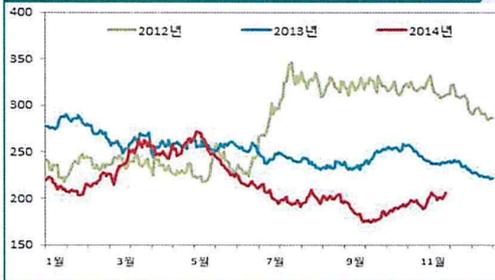
단위 : US\$/ton

구분	기준일 ('14.11.26)	전일대비	전월평균 ('14.10)	2013 평균
밀	206.50	▲1.9%	188	251
옥수수	148.89	▲1.1%	138	228
대두	384.70	▼0.4%	354	517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옥수수:12월물, 대두:1월물) 정산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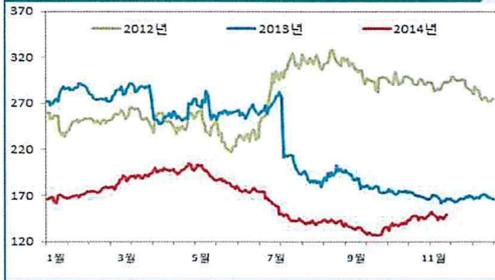


#### ● 밀 선물시장 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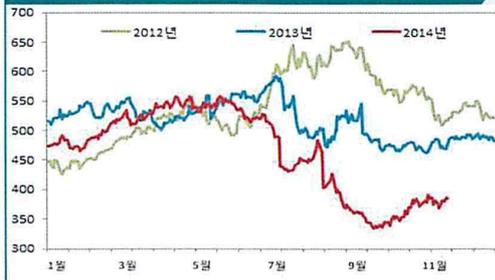
미국산 밀가격은 기술적 매수세 및 세계 생산전망에 대한 우려로 이틀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일주일래 최고치로 상승하였음. 호주 및 미국뿐만 아니라 흑해지역의 기후악화가 세계 생산전망 우려를 야기하였음.

#### ●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



옥수수가격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상승했음. 또한,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11월21일 주간의 일일평균 에탄올 생산량은 982,000배럴로 2010년 이후 최대 생산량을 보여 옥수수 가격에 추가적인 상승 압력을 가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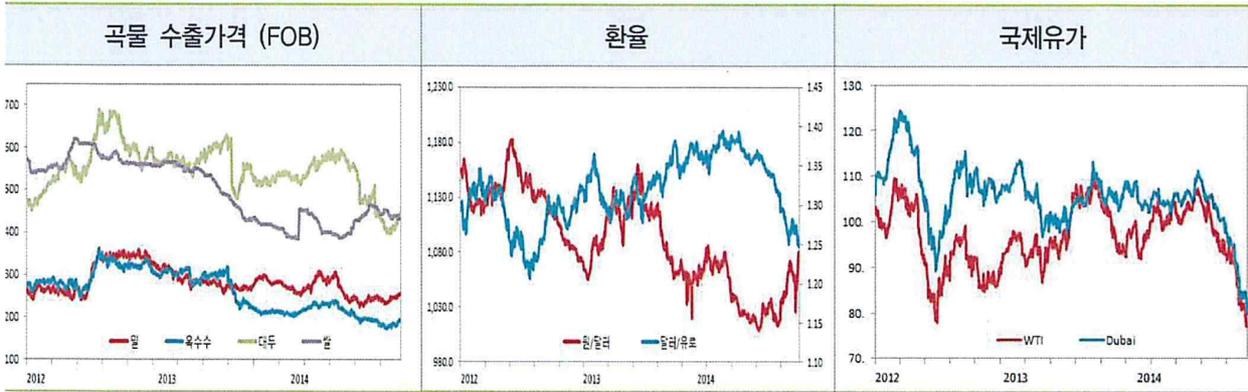
#### ● 대두 선물시장 시황



대두가격은 이상적인 남미기후 전망에 따른 브라질 대두파종 정상화로 하락하였음. 그러나 미국의 대두박 강세로 하락폭이 소폭 제한되었음.

간편  
네이빙

- ◊ 곡물 수출가격은 전반적으로 견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옥수수는 국내 가공업자들의 높은 수요에 따른 타이트한 수급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 국제유가는 OPEC 감산 가능성 감소 및 미 원유재고 증가전망 등으로 하락했으나 유로화 대비 미 달러화 약세로 하락폭이 제한되었음.



구 분		기준일	전일대비	전월평균 ('14.10)	2013 평균	2012 평균
곡물 수출가격 (FOB)	밀	257	▲1.2%	247	284	300
	옥수수	189	▲1.6%	184	265	300
	대 두	435	▲1.6%	416	556	571
	쌀	420	-	438	488	572
환 율	원/달러	1,107	▼0.5%	1,059	1,095	1,127
	달러/유로	1.251	▲0.3%	1.27	1.33	1.29
국제유가 (US\$/barrel)	WTI	73.69	▼0.5%	84.34	97.94	94.19
	Dubai	75.71	▼1.8%	86.71	105.32	109.06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4.11.25(수출가격), '14.11.27(환율), '14.11.26(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해외곡물시장 관련 소식

-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1-11월 쌀수출량은 총 6.1백만 톤(전년동기 대비 2% 감소)으로 추정되며 11월에는 500,000톤 (17% 감소)으로 추정됨.
- ◊ USDA에 따르면, 미국 민간 수출업자는 유통년도 2014/15년도분 수수 116,000톤을 미공개지역으로 판매했다고 함.
- ◊ 이란은 러시아산 제분용 밀 65,000톤을 구매했으며, 이와 별개로 매월 약 30,000톤의 밀을 카스피 해를 통해 수입할 것임.
- ◊ 10월말 브라질의 2014/15년 대두 선물판매는 21%(전년동기 34%)였음.

## 8. 고소득 농업사례

### ■ 농촌 청년사업가 어린이용 버섯체험키트 출시

- 석사 청년농부, 버섯체험키트 개발 -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양성 중인 농촌 청년사업가가 어린이용 버섯체험 키트를 출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전남 장흥 삼광버섯영농조합법인 차주훈(29) 대표.

석사 출신인 그는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버섯을 체험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5일 전남농기원에 따르면 차 대표가 개발한 버섯체험키트는 기존의 병버섯 재배 기술과 봉지재배 기술을 접목시킨 방식으로 오염률을 줄여 버섯의 초기 발아를 도와주는 플라스틱 캡을 사용했다.

과학적인 체험이 쉽도록 온도계와 습도 조절을 위한 스프레이를 포함, 간이하우스 형태로 제작했다. 특히 어린이 상품임을 부각시킨 '자라라'라는 브랜드와 상상력이 담긴 그림을 박스 디자인으로 활용, 어린이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버섯의 성장과정을 이해하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차 대표는 2012년 대학원에서 식물의학 석사학위를 받자마자 종균 배양소를 운영해 온 부모의 대를 잇기 위해 버섯농사에 뛰어든 새내기 농사꾼이다.

차 대표는 “소비자들이 생육과정을 눈으로 보고 수확해 요리로 만들어 보는 체험에 어린이 체험객들이 많아 이들에게 다른 체험장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버섯체험키트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린이들의 상상력 향상과 자연학습은 물론, 재사용이 가능한 다양한 버섯재배 체험키트 상품이 필요했고, 전남농업기술원의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구체화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 대표는 이번에 개발한 버섯체험키트를 아이디어 상품으로 특허 출원하고 어린이 고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확대와 교육기관에 어린이 교육용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 출처 : 남도일보

## 9. 사업신청 안내

### ◆ 201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지원사업 신청

- 기간/ 장소 : '14. 11. 20. ~ 12. 19./ 거주지 읍면사무소
- 지원자격 : 농·어업인 및 법인 대표가 65세 이하로서 1년이상 거주한 자(단, 귀농어가, 신지식학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판매가맹점 주는 제외)
- 지원내용 : 연1%, 생산, 가공, 유통, 수출 등을 위한 시설·운영자금
  - 개인 1억원, 법인·신지식학사농어업인 2억원, 저온저장고 3억원
- 시설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조경수·과수묘목구입 및 과원조성, 저온저장고 시설 : 3년거치 7년
  - 신지식학사농업인 :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에너지 농장사업 : 10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 신지식학사농업인 및 배양기간이 2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종패, 치어 등 구입)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친환경농산물 판매 위한 가맹점 개설 : 최대 10년 거치 일시상환

### ◆ 20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 기간/ 장소 : '14. 12. 31까지 /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 지원자격 : 만18세이상 50세미만,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자, 농업경영체등록(예정자)
- 지원내용 : 농지구입, 시설하우스·축사신축 등 영농창업 자금
- 지원액 : 1인당 2억원 한도(연2%, 3년거치 7년 상환)

주간

전남농업정보 11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 534-700

Tel. 061-286-6252

Fax. 061-286-4782